소년단

116

3 - JUL 28
Copy ____ 1960

1956. 11

붉은 광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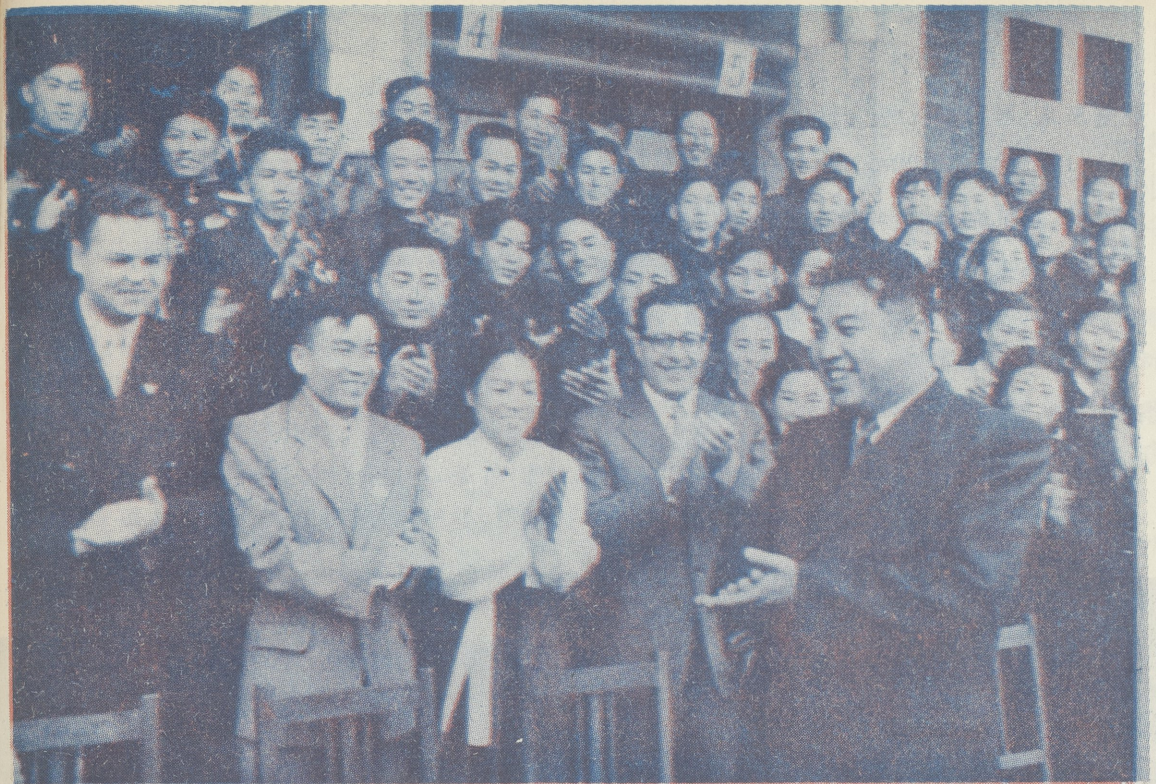
아 • 바르또

사람들은 줄지어 지나간다
해마다 저 붉은 광장을
사람들은 당의 부름을 들었다
불빛 가리운 여기, 싸우는 모쓰크바에서

이 광장에서 끄레믈리 성벽에서
모쓰크바 강변에서 곧바로
볼쉐위크들은 전선으로 달려 갔다
모쓰크바를 가슴으로 막으며

바로 그 1917년
전투 부대들 처음으로
발소리 드높이 이 광장을
오각별 받들고 나아갔다

그 별과 더불어 레닌의 초상화와 더불어
최우등생들이 지금 앞으로 나아간다.
발걸음 맞추며 분단이 지나간다.
뻬쨔는 흥분하여 저도 모른다.
제가 과연 노래를 부르는지, 않는지.

(박 영 근 역)

삼천만 인민의 아들딸

첫날의 감격

11월 3일부터 엿새 동안 민주 수도 평양에서 열렸던 민청 네번째 대회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끝났습니다.

공화국 각지에서 모여 온 민청 형님 누나들은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자랑들을 서로 나누며 앞으로 더 잘 일해 나갈 것을 의논하는 기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첫날의 감격이 더욱 컸습니다.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가 열렸던 자리에서 이날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하여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자들을 주석단에 모시였고 또 이날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4차 대회에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민주 청년 동맹과 남녀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애국적 투쟁과 우리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들을 높이 찬양한다…》

이 편지는 민청 4차 대회에 모인 대표들은 물론 우리 나라 전체 형님 누나들을 감격시켰습니다.

참으로 민청은 이번 대회에 이르는 8년 동안 조국의 력사에 빛나는 페지들을 남기였습니다.

그동안 형님 누나들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섰으며 원쑤를 무찌르는 전투에서 영웅답게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형님 누나들 속에서는 공화국 영웅들을 비롯한 수많은 모범 군무자들과 로력 영웅, 로력 혁신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로동당의 지도 밑에 민청에서 교양 받고 훈련된 50여만 청년들이 로동

당원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소년단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100만의 훌륭한 형님 누나들이 민청원으로 되였습니다.

지금 조선 청년들은 세계 인민들과 청년들로부터 《영웅 조선 청년》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큰 자랑을 지니였습니다.

민청 중앙 위원회 박 용국 위원장은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서 이와 같은 빛나는 성과와 아울러 로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민청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열렬한 축하

위대한 쏘련과 중국으로부터, 몽고와 월남으로부터 그리고 세계 민주 청년 련맹과 국제 학생 동맹으로부터 온 청년 학생 대표들은 민청 4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청 형님 누나들이 이룬 빛나는 성과를 자기들의 일처럼 한결 같이 기뻐하였고 세계 모든 나라 벗들과 함께 어깨 겯고 나가는 조선 청년들은 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청 4차 대회는 이밖에도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꽃봉오리들인 소년단 축하단의 축하도 민청 형님 누나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새 나라 새 일'군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맹세한다.

민청이 우리를 가르친 것처럼 참되게 용감하게 꾸준히 배우리라.

형님 누나들이 걸은 길을 따라 우리들은 힘차게 나아가리라!…》

소년단 축하단은 형님 누나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용감한 투사들이 되리라!

민청 형님 누나들 앞에는 로동당 제3차 대회가 내놓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민청 4차 대회는 이일을 자랑차게 실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인민 경제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뒤떨어진 탄광, 광산, 림업, 수산 부문에 용감히 참가하여 모범을 보이며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평양에 건설될 전기 기계 공장 건설 공사와 평남 은산 지구 청년 탄광 개발 공사를 민청 단체들이 맡아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민청 단체들은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에 2만명의 농업 및 축산 기수, 기사를 키울 것도 내세웠습니다.

민청 4차 대회에서는 우리 소년단 생활을 더 잘 지도할 데 대하여 의논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의 감정과 요구에 알맞게 여러가지 재미 있는 방법으로 소년단 생활을 지도하며 이를 훌륭히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소년단 지도자들을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민청 4차 대회에서 민청 형님 누나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용감한 투사들이 될 것을 한결 같이 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형제 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 벗들과의 친선을 더욱 굳게 하면서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민청 4차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용감히 나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훌륭히 해내기 위하여 민청 4차 대회는 민청 중앙 위원회를 비롯한 새 지도 기관들을 선거하였으며 새 민청 규약도 정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민청에 단결된 150만 민청원들과 전체 청년들이 로동당과 공화국 정

《상 봉》
민청 제4차 대회 대표로 참가한 미술 대학 학생 전 순자 언니가 그린 그림

부 주위에 강철 같이 뭉쳐 있으며 당이 맡기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남김 없이 자랑하였습니다.

대회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호소문을 보내였습니다. 여기에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청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다 힘과 지혜와 정열을 하나로 뭉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민청 형님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하루 속히 가져 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대회는 영, 불 및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있는 애급 청년들에게 힘찬 성원을 보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청 4차 대회에 모였던 형님 누나들은 대회에서 다진 힘찬 결의를 안고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힘찬 행군

공장들과 탄광들에서 농촌과 밀림 속에서 바다'가와 건설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민청 제4차 대회의 결정을 꽃피울 우렁찬 노래 소리가 높아 갑니다.

우리들은 민주 청년
3천만 인민의 아들딸…

대회가 끝난 8일 저녁—불빛 낮처럼 밝은 모란봉 경기장에서는 민청 4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끝난 것을 경축하는 평양시 청년 군중 대회가 열리였습니다.

이 군중 대회는 먼저 민청 중앙 위원회 박 용국 위원장이 민청 4차 대회가 형님 누나들의 영광스러운 일을 결정한데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평양시 청년 군중 대회

경기장에 모인 10만 청년들은 만세와 환호로 4차 대회의 결정을 환영하였습니다. 민청 형님 누나들의 얼굴은 새 과업을 훌륭히 해낼 결의로 더욱 빛났습니다.

형님 누나들은 한결같이 웨쳤습니다.

우리 조국은 하나이다. 우리 조국은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남북 조선 청년들은 손목을 굳게 잡자!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 가라!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던 쏘련, 중국 청년 대표들과 세계 민청, 국제 학생 동맹 대표 들은 4차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나가는 조선 청년들의 빛나는 앞길을 축복하였습니다.

《조선 청년들과 쏘련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 만세!》

청년들의 만세 소리는 멀리 멀리로 울려 나갔습니다.

민청 4차 대회 대표들과 외국 청년 대표들의 친선

군중 대회는 이윽고 밝은 불빛 아래《옹헤야》 《한강수 타령》 등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와 군중 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쏘련, 중국, 몽고, 월남 등 외국 청년들도 어울리여 춤춥니다, 노래도 춤도 끝날 줄 모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용감히 전진하는 《3천만 인민의 아들딸》의 힘찬 행군을 축하하여!

민청 4차 대회에 참가하였던 황해 제철소 민청로 작업 반장 황은성 형님은 자기 작업 반원들과 함께 더 좋은 강철을 더 많이 만들자고 의논한다.

풍작이룬 평화리’벌에는 누렇게 무르익어 무겁게 고개를 드리운 벼 이삭들이 가을 바람에 설렁거립니다.

가을하는 조합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기쁨이 흘러 넘치고 코’노래도 흥겹습니다.

이삭이 우쭐우쭐 춤추는 벼’단을 나르는 소달구지도 분주히 오갑니다,

달구지가 언덕길에 이르자 평화 인민 학교에서 돌아오던 이 마을 소년단원들이 와—뛰여와서 달구지를 밀어 올립니다.

언덕에 올라 서자 조합 아저씨는《참 고맙다. 성춘이, 너네는 오늘 새집에 이사한다지?》하고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벙긋이 웃습니다.

《예, 오늘 이사해요》. 성춘이는 자랑스러운듯 크게 대답했습니다.

《넌 참 좋겠구나, 네 방도 가지게 되니》. 종민이가 하는 말이였어요.

《뭐 부러워할께 있니! 너희두 오는 봄에 새집을 크게 짓는다면서》하고 순봉이는 종민이의 어깨를 탁 밀쳐 줍니다. 둥근 얼굴에 희죽이 웃음을 지으며 깡충깡충 뛰여가던 성춘이는《너희들 저녁에 놀러 오나! 응》하고 손질합니다.

성춘이네 일을 돕자고 약속한 종민이와 순봉이도 그를 따라 뛰여 갑니다.

새로 훌륭히 지은 관리 위원회 사무실 마당에는 벌써 큰 난가리들이 여러개 쌓였습니다.

달구지로 실어온 벼’단을 받아 난가리를 높이 쌓아 올리던 아저씨 한분이 허리를 펴며《여보게 난 자랑하고 싶네, 난생 처음으로 이런 큰 난가리를 쌓으니 말일세》하고 너털 웃음을 웃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처음이다 뿐인가…》.

《농사는 해마다 우리들의 피땀으로 지어서도 지주놈들의 배만 채워주던 리 승만의 통치 밑에서 살던 때야 이런 세상을 어디 꿈엔들 생각이나 해 봤소》.

《참 그놈의 세상에서 억울하게 지낸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

《아니 여보게 그런데 저 백정마을에 심은 벼 현물세를 몽땅 면제해 준다는게 정말인가?》. 벼’단을 버쩍 추켜 올리며 불쑥 이렇게 묻는 만봉 로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어려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원 할아버지두 그건 왜 새삼스럽게 물어 보세요? 우리 공화국에서 농민들을 보살펴 준게 한두번이라구》. 벼’단을 받아 올리던 아저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아 그야 그렇지,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면제 받는 것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하는 말일세》.

이곳 농업 협동 조합에서만 해도 이번 내각 결정 100호에 의하여 벼 현물세 2,200가마니 가운데서 1,600가마니를 면제 받게 되였으니까요.

《하하…》 조합 마당에는 즐거운 웃음이 흘러 퍼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더욱 힘차게 벼’단을 번쩍번쩍 추켜 올렸습니다. 난가리는 금시에 하늘에 닿을 듯 높아만 갔지요.

튕겨날듯이 토실토실하게 여문 벼알이 그저 탐스럽기만 해서 일을 끝마치라는 조합 종이 울린지도 이슥하였는데 난가리는 자꾸만 자꾸만 높아갔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오던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벙글벙글 웃으며 《이젠 그만들 수고하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성춘이네 집에나 들려 봅시다》하고 재촉해서야 모두 일'손을 놓게 되였습니다.

관리 위원회 마당을 나서는 조합원들의 웃음 띤 얼굴들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받아 더 밝아 보였습니다.

× ×

조합원들은 성춘이네가 맞는 경사를 저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성춘이네 새집으로 모여 왔습니다.

이사하는 일은 서로 도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성춘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방안에 모시며 이렇게 말했지요.

《참 좋은 세상이지, 땅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겐 집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니》.

성춘이네만 해도 내각 결정 100호에 의하여 올 봄에 받은 60여 Kg의 대여곡을 면제 받았고 현물세 면제로 벼11가마니가 더 차례지게 되였습니다.

《벌써 우리 마을엔 새집이 여섯채나 더 느는군…》.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몹시 만족해 하십니다.

《애야 너두 공부를 잘 해라! 너의 형은 망할 놈의 세상에서 학교도 못다니고 놈들에게 끌려가서 개고생을 하지 않니》 하고 성춘이 아버지는 책상을 정돈하고 있는 성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애가 집에 있다면 우리 살림은 남부러울게 없지요. 어서 하루 바삐 통일되기만 하면야…》. 남쪽 땅 그 어느 곳에서 헐벗고 굶주릴 아들을 생각하며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는 것이였

지요.

《그렇구 말구, 이웃집처럼 다니던 조산'벌을 눈 앞에 두고도 다니지 못하다니 될 말이요. 어서 그 미국놈들을 썩 내쫓아야지…》하고 만봉 할아버지는 담배를 뻑뻑 빨아서 연기를 뿜어 올렸습니다.

《글쎄 인민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물건 값을 내리웠지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올렸지, 또 우리 농민들에겐 쌀이 더 차례지게 해 주었지…》. 관리 위원장 아저씨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금순의 할아버지는 흰 수염을 더듬으며 《내 나이 많아두 선거 날엔 첫 새벽에 나가서 제일 먼저 투표하겠소 우리를 잘 돌봐주는 훌륭한 일'군을 선거해야 남쪽 땅에 있는 농민들도 빨리 우리처럼 잘 살게 될께 아니요》.

방안에 모였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벌써 선거의 노래도 배웠는데요》. 성춘이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뽐내서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애야, 너도 옷을 갈아 입어라》. 이사'짐을 나르느라고 흙이 묻은 성춘의 옷을 쳐다 보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궤에서 새 양복 한벌을 꺼내는 것이였어요.

새 옷을 갈아 입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성춘이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순봉이 종민이와

함께 막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전등이 밝은 새 방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우습광을 피우며 나가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때마침 둥근 달이 아름답게 비치는 평화리'벌에는 소년단원들이 부르는 선거의 노래 소리가 크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

인민의 새 나라를 길이길이
빛내일
용감한 투사들을 선거합시다!

(1956. 10. 15)

박 정 렬

소년단원들의 부탁

공화국 영웅 리 구 화

영광스럽게도 민청 제4차 대회에 참가하였던 나의 머리에서는 감격스러웠던 여러가지 일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이며 자랑인 소년단원들의 축하단이 축하해 준 일도 잊혀지지 않는 기쁜 일의 하나입니다.

라팔을 불며 소년단 기'발을 앞세우고 씩씩히 행진해 들어 온 조국의 꽃봉오리들!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모두 소년단 축하단의 축하를 감격 속에서 받았습니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품 속에서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대회를 축하하여 주던 소년단원들은 우리들을 친형님 누나처럼 믿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였습니다.

그 부탁 가운데는 나의 가슴을 더욱 뛰놀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바삐 불상한 남반부 어린이들과 한 집에 모여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 바삐 그리운 남반부 어린이들의 손목을 잡고 뛰여 놀고 싶습니다. 둘이 아닌 조선 소년들의 마음을 한데 묶어 형님 누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루 바삐 평화스럽게 통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이 부탁의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가슴을 쾅쾅 울렸습니다.

한 집에 모여 살고 싶고 손목 잡고 뛰여놀고 싶은 마음! 이 어찌 북반부 소년들만의 마음이랴!

이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마음이며 남반부 소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남반부에서 살다가 북반부에 들어와 행복을 찾은 나는 그것을 더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1950년 봄 북반부로 넘어 오기 전까지 남반부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열네살부터 하루 하루의 끼니를 에우기 위하여 주물 공장에서 몇푼 받지도 못하면서 힘에 겨운 일을 해야했고 또 나이가 좀 들자 미국놈들의 대포밥인 《국군》에 끌려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동당과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나는 민청 생활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하며 원쑤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배웠으며 그렇게 싸웠습니다.

우리 조국에 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에 나는 전우들과 함께 적 비행장과 적 진지에 들어가 비행기와 땅크들을 까부셨으며 수백명의 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공화국 공민의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우리 인민 군대의 힘으로 해방된 내 고향 연안에서 씩씩한 민청원으로 소년단원으로 행복하게 자라나게 된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회에서 소년단 축하단의 축하를 받으면서 나는 이렇듯 행복한 나와 동생들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자양 인민 학교 5학년에 다니는 막내 동생 금옥이의 편지도 생각났습니다.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는 것을 나에게 자랑하면서 소년단에서 씩씩히 자라나 오빠보다 더 훌륭한 민청원이 되겠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재미있는 분단 생활을 보여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회에서 이렇게 행복해진 우리 집과 우리의 보람찬 생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불행한 남반부 인민들을 하루 바삐 구원해 내여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대회에서는 한결 같이 조국을 하루바삐 평화스럽게 통일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을 다졌으며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힘을 한데 뭉치여 같이 싸워 나가자고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부대에 돌아가면 민청 4차 대회의 이 소식들을 부대내 민청원들에게 널리 알려 주며 조국의 초소에 더욱 튼튼히 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렵니다. 바로 이것이 당과 인민이, 그리고 민청 4차 대회가 나에게 맡긴 영예스러운 임무입니다.

이것이 곧 소년단원들의 부탁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민청 제4차 대회에 대표로 참가한 운전 서삼 인민학교 소년단 지도원 최 병률 선생님을 찾은 평양 제6 중학교 대 소년단원들

새끼토끼가 손자토끼를 낳기까지

《애들아, 토끼가 또 새끼를 낳았어—》.

아침 일찍부터 토끼우리를 돌보던 창남이가 이렇게 소리치자 소년단원들은 동물원 가축사에로 막 뛰여 갔습니다. 《어디 몇마린가 좀 보자꾸나》. 모여온 동무들은 모두들 와짝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떠들지들 말아. 갓난 새끼는 보잘 것 없다니깐, 눈도 못뜨고 털도 안났는데 뭐》.

《우린 그걸 보려는 거야. 어디 좀 보여 주렴아》.

《안돼, 괘니 또 새끼에게 젖을 안먹이면 어쩔라구 그래—》.

토끼 사양반 책임자 창남이는 토끼우리의 문을 막아 서며 모여온 동무들에게 친절히 타이르는 것이였습니다.

그제야 동무들은 하는 수 없이 되돌아 서는 것이였어요.

갓난 새끼를 만지면 어미 토끼는 젖을 안먹이는 수가 흔히 있으니까요.

이번에 새끼 토끼를 낳은 것은 전보다 더욱 우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른 새끼가 자라나서 첫 새끼를 낳았고 첫 새끼가 자라나서 또 새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끼토끼가 손자토끼를 낳기까지 우리는 학교 동물원에서 여러가지 가축, 가금들을 기르면서 그것들의 생활과 습성들을 훌륭히 연구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구요?

× ×

지난 해 10월이였습니다. 그때 4학년이던 우리는 자연'파에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즉 집오리와 집토끼를 배우고도 그것들의 생활과 습성들을 직접 관찰 연구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앞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동물들을 길러 보기로 의논하고 처음에 새끼 토끼 두마리와 닭 두마리, 오리 두마리를 각각 암컷과 수컷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6일 처음으로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대 위원회는 여기에 소질 있는 동무들로서 오리 사양반, 토끼 사양반, 닭 사양반으로 나누어 가축 및 가금 사양 끄루쇼크를 조직하였습니다.

끄루쇼크원들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때에 동물들에게 모이를 주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축사의 청소도 깨끗이 하며 가축 사양 일지를 적어 가면서 열심히 동물들을 길러 갔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축들을 기른다는 소문이 퍼지자 학교 마을 어른들은 동물원에 노루를 비롯한 두더지, 박쥐, 후두지(새의 일종) 등 여러가지 야생 동물들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마 고원의 북쪽 해발 1,200m가 넘는 우리 지방은 어느덧 겨울의 모진 추위가 닥쳐 오게 되여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0하 40도에 가까운 겨울 추위에서 이 동물들을 월동시켜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물이 꽁꽁 얼어 붙는 날씨에도 하루에 한번씩은 오리에게 죽을 끓여 주며 토끼나 기타 동물들에게도 사료를 제때에 주고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끄루쇼크원들과 전체 소년단원들은 열성껏 동물들의 월동을 보장해 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실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생 동물들의 생활 습성을 알지

못했던 탓으로 박쥐와 후두지를 길러내지 못했으며 노루 새끼도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끼도 웬일인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사료를 주는데 까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자라나는 토끼가 귀엽다고 토끼 우리에 자주 가보며 가보는 동무들마다 되는대로 사료를 주군 하였습니다. 때문에 끄루쇼크에서는 동물들에게 주는 사료의 량을 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되였습니다. 처음 500g의 무게를 가진 새끼 토끼 한마리에게는 15일간 하루에 건초 200g와 곡식 사료 20g씩을 주었고 다른 한마리에게는 건초 150g에 곡식 사료 30g씩을 주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건초 150g에 곡식 사료 30g씩을 주는 것이 토끼의 발육에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끼에게도 하루에 소금 2g 정도씩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물론 토끼가 성장함에 따라 사료의 량을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500g의 무게밖에 안되던 토끼는 4개월이 지난후 2K 500g의 무게를 가진 큰 토끼로 자랐고 3월7일에 첫 새끼 7마리를 낳았습니다. 그후 계속하여 어미 토끼는 오늘까지 네차례에

걸쳐 29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며 3월 7일에 낳은 첫 새끼가 자라나 오늘은 또 새끼 토끼를 낳게 되여 우리 토끼 우리에는 할아버지 토끼로부터 손자 토끼까지 살게 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토끼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크로바와 민들레 등 즙이 많고 부드러운 풀들을 즐겨 먹는다는 것, 갓난 새끼 토끼는 몸 길이가 겨우 7.5Cm, 무게는 150g 정도이며 낳아서 1주일이 지나면 털이 나고 12일만이면 눈을 뜬다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땅 속에 굴을 파고 새끼를 낳았던 어미 토끼가 새끼를 데리고 땅굴에서 나온 후에 그 땅굴을 흙으로 메우고 보통 땅보다 더 단단히 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토끼가 자기의 굴이 다른 짐승들에게 발

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동물원에서는 오리가 4월 7일부터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 7월 5일까지에 68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중 11개의 알을 5월 21일 암탉에게 안기여 새끼 오리를 깨웠고 7월 중순에는 8개의 알을 시험적으로 오리에게 안기여 깨워 보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겨우 3개의 새끼를 깨웠지만 오리가 전혀 알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오리의 발에 있는 지간막은 그가 헤염치기에는 매우 유리한 것이지만 알을 깨우는데는 그것이 방해로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물원에는 날이 갈수록 많은 동물들이 늘어만 갑니다.

지난 8월 23일 학교 동물원에는 형제 나라 몽고 인민이 보내준 양과 염소 두마리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에서 기를 수 있는 것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동물들을 우리는 거의 다 기르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 학교 동물원에는 오리, 닭,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8가지의 종류에 72 마리의 가축 가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량강도 운흥군 로중 제1 인민 학교
렴 학 연

쏘련 삐오네르들을 만나고

김 찬 흥

쏘련이 위대한 나라라는 것은 책과 영화와 라디오를 통하여 이미 많이 듣고 보았었지만 나는 지난 여름 쏘련을 려행하면서 그를 더욱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보고 느낀 많은 것 가운데서 삐오네르 동무들을 만났던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쏘련의 여러 곳에서 많은 삐오네르 동무들을 만나게 되였고 그들의 생활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민쓰크 삐오네르 야영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야영소는 그리 높지 않는 언덕에 소나무가 우거진 경치 좋은 곳이였습니다. 우리 일행이 솔발 어구에 들어 서자 수 백명의 삐오네르들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안겨 주면서 《귀중한 손님들 우리 인사를 받아 주십시요》. 《조선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우리의 친선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요》하며 부모나 친척을 오래간만에 만난 것처럼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우리의 손을 끌며 자기들의 방 구경도 하고 무용도 같이 하고 장기도 같이 두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우리는 누구에게 끌려 가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로 방 구경을 차례로 하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안에는 침대가 10여개씩 놓여 있었고 침대 곁에는 꽃병과 생활 도구들이 모두 보기 좋게 정돈되여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유희도 하고 춤도 추고 배구도 치고 끄루쇼크실도 구경하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민쓰크 시내의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고 그 밖에 학생들은 시 부근 학교들에서 왔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취미와 소질에 알맞게 각종 끄루쇼크에 참가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행군도 조직하고 꼴호즈와 공장도 방문하며 재미 있고 유익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끄루쇼크들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공장이나 꼴호즈들에서의 실지 생산과 련결시키는 방향에서 각종 모형들을 만들어 보며 실험 실습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접 일하고 있는 공장과 꼴호즈에 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끄루쇼크들 중에는 사진 끄루쇼크도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수명의 학생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우리를 따라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감격케 한 것은 우리를 환영하는 연예 끄루쇼크 공연이였습니다. 음악, 무용 등 그 재주가 훌륭하였고 그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모든 것이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하고 세계 평화와 친선을 위한 투사가 되겠다는 열렬하고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여 준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던 때의 일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두 손목에 매달려 《조선 소년단원 동무들의 야영 생활은 어떻습니까?》《조선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에 돌아 가시면 조선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우리의 친선의 인사를 꼭 전해 주세요》하며 몇번이고 묻고 부탁하던 알랴와 로리세 동무의 얼굴이 지금도 선히 떠오릅니다.

삐오네르 동무들이 우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 주는 것과 조선 소년들에 대한 형제적 사랑은 씨베리 강'가에서도 아동 철도(쏘련에는 여러 도시에 아동 철도가 있는데 아동들이 직접 기차를 운전하고 역 관리 사

업도 하고 있습니다) 역에서도 공원에서도 로동자 사택 지구들에서도 꼴호즈 마을에서도 모두 같았습니다.

나는 삐오네르들을 만났을 때, 마다 어째서 이들이 조선 소년들에 대하여 이렇게 친근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가? 하고 생각하군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주의 나라인 위대한 쏘련에 대하여 친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군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은 오직 사회주의 나라에서 자라며 교양 받고 있는 소년들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이 나라 가는 곳마다에서 이렇게 씩씩하고 행복하게 자라며 귀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삐오네르 동무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쏘련 인민들이 조선 인민들과 조선 어린이들에 대하여 친 형제와 같이 맞이하여 줄 때마다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 주었고 원조해 주고 있는 위대한 쏘련과 친선을 맺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깊이 느꼈습니다.

분단의 축구 시합

반별 축구 시합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 분단 열성자인 제신이가 책임지고 련습을 같이 하기로 한 2반에서 한참 신이 나서 련습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련습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입을 삐죽삐죽하며 제신이의 말을 잘 듣지 않던 백민이가 련습 도중에 일부러 뽈을 멀리 밭 가운데로 힘껏 차 던졌습니다.

제신이와 반 동무들은 백민이를 쏘아 보며 《왜 뽈을 그리루 차 버리니? 빨리 주어와!》하며 분이 치밀어 말했습니다.

《뭐? 나두 몰라, 하기 싫어 난 갈테야…》. 도리여 큰 소리를 치며 백민이는 달려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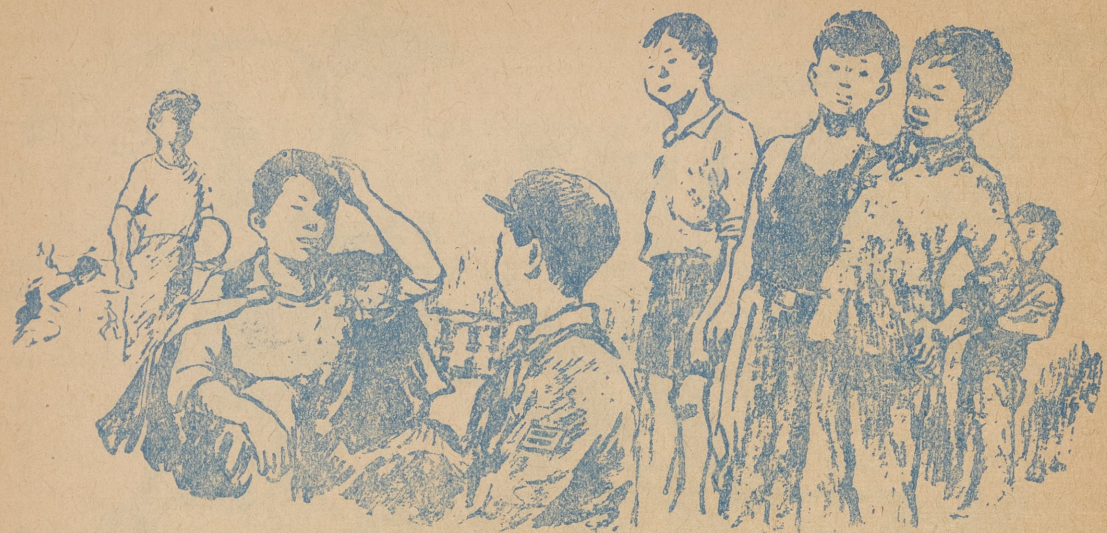
이튿날 분단 모임에서였습니다. 《백민이에겐 그런 버릇이 그냥 있어, 분단 위원장이라구 으쓱해서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루하던 그 버릇 말이야…》 하고 춘호가 말했습니다.

《그전처럼 뽈을 혼자 도맡아 차지 못해서 넌 그러지…》. 제신이가 이렇게 말하자 백민이는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나 《그전엔 한 구석에서 말도 못하던 것이 뭐 분단 열성자나 됐다고 우쭐대는거냐》하고 대드는 것이였습니다.

《아니 그래 너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우쭐하는거냐?》 하며 제신이는 기가 막힌듯이 되 물었습니다.

《백민인 우리 분단이 재미 있게 사업하기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생각으로 그러나봐…》 하며 백민이의 말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따르던 향민이까지도 말했습니다.

× ×

분단 동무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지난 날 백민이는 분단 사

업을 자기 고집 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때때로 동무들이 의견을 말하려 하여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와 의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민이가 없는 데서는 《2분단 열성자들은 반에 와서 숙제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더라!》. 《1분단에선 우등'불 모임을 했는데 참 재미 있었대…》. 《우리 분단 위원장이야 그런걸 안다나, 그저 큰 소리만 탕탕 치지…》라고들 하면서 안타까워들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번 열성자 선거에서는 늘 동무들이 따르며 좋아하던 광호가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되였습니다.

광호는 백민이와는 달리 그전에 분단 열성자로 사업할 때부터도 동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업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된 광호는 동무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제때에 분단 열성자들과 의논하면서 재미 있게 조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축구 시합을 하게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어느 날 다른 분단에서 륙상 경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 신이 나서 손'벽을 치며 응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광호는 우리 분단에서도 멋있게 한번 해볼테다 하고 생각하는 중에 운동을 좋아하는 재구가 《야 광호야, 우린 축구 시합하자 응…》 하고 의견을 말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단 동무들은 자기의 의견을 꺼리낌 없이 말하게 되였고 열성자들은 그 의견을 잘 의논하여 분단 사업을 점점 재미 있게 꾸려 나갔습니다.

× ×

광호는 말 없이 앉아 있는 백민이를 바라보며 《백민아 뭘 그러니… 넌 뽈두 잘 차지 않니 이번 축구 시합을 한번 멋지게 해보자야… 응…》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머뭇머뭇하며 머리를 슬슬 만지고 있던 백민이는 《나…생각해 볼래…》라고 말했습니다.

백민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던 동무들은 모두 웃음을 띄우고 래일 축구 시합에서 저마다 이기겠다는 이야기로 신들이 났습니다.

이튿날 축구 시합은 참 즐거웠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빠짐 없이 뽈을 힘껏 찼습니다. 더구나 백민이가 뽈을 멋지게 차 넣었을 땐 반 동무들은 모두 토끼춤을 추다싶이 하며 좋아했습니다.

분단 열성자들은 축구 시합에서 제일 우수한 반 동무들에게 꽃다발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계시던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반별 축구 시합을 재미 있게 참 잘 조직했다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은 동무들은 기쁜 얼굴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축구 시합은 참 멋있었거든》.

《요다음엔 피구 시합을 하자…》.

《머 체육 시합만 하겠니? 다음엔 연예 발표두 하자 야…》.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때 양복 저고리를 입으며 달려온 재구는 동무들 등에 매여 달리며 《애들아 축구 시합이 정말 그럴듯 했지 축구가 제일이야 제일!》.

《그럼 축구가 이거야 이거…》. 백민이도 엄지 손'가락을 꼰아댑니다.

《글쎄 오늘 축구도 좋았지만 지난번 읽은 책 모임도 재미 있었지 머…》라고 서로 자랑합니다.

저녁 노을이 곱게 물든 거리로 이들은 소년단 행진곡도 씩씩히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이였습니다.

(황해남도 연안 제1 인민학교 대에서)
최 옥 선

어느 때 한번 웅덩이 물이
대동강 물 보고 빈정거렸네.

…늘 봐야 밤 낮
흘러만 가는구려
나는 밤 낮 늘어지게 잠만 자
서도
이렇게 편히 살고 있다누
그러니 당신을 바보랄 밖에…
그저 밤 낮
일만 하는구려
그래 대관절
무슨 좋은 수라도 생겼수
고작해야 밤 낮
석탄'배 짐'배나 싣고 다니는
구려…

한구비 돌던 대동강 물!
철썩 처절썩 대답했네.

…당신의 눈에야
그렇게도 보일테지요.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하여
일하며 물'결치며 흘러 갈
테니
걱정 말고 당신이나 편히 자
구려
그러나 어찌되나 두고 봅시다.

사실 그후에 어떻게 되였나?
살아서 일하는 대동강 물!
물'결치며 커지며 흘러가고,
한 자리에 주저 앉아 편히 살던
웅덩이 물!
자는 동안 그 정신 썩어만 가
더니
해잘나는 어느 날 말라 죽었네.

관리 위원회 앞 넓은 마당에서 웡웡 신나게 돌아가던 탈곡기의 소리도 그치고 흐르는 청천강 물 소리라도 들릴듯 고요해지는 초저녁입니다.

기와집들로 소담한 마을들에서는 저녁 설겆이를 끝마친 어머니들이 빨리 민주 선전실로 가자고 이웃 어머니를 부르기도 하고 집을 나서기도 합니다. 일찍 저녁밥을 먹은 이 마을 준혁인민 학교 소년단원들이 민주 선전실로 가면서 씩씩하게 부르는 선거의 노래 소리도 들려 옵니다.

벌써 민주 선전실에는 치모의 할아버지와 마을 할아버지들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며 선거에 대한 강연회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리 어른들의 수고야말로 정말 컸지, 컸어! 우리 마을에 자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그래 우리들이 잘 선거했지!》.

이때 소년단원들이 민주 선전실 안으로 들어 섭니다.

《할아버지 오셨구나!》 하고 합창단원인 치모가 자기 할아버지한테로 달려 가자 그의 동무들도 모두 달려 갑니다.

《응, 너희들 다들 왔구나! 창가하려들 왔나? 또 춤도 추고…》하고 어린이들의 머리를 귀엽게 쓰다듬어 주시며 치모의 할아버지는 끊었던 이야기를 다시 잇는 것이였습니다.

《피알골이 이렇게 흥성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참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했지!》.

《암, 그렇구 말구》.

피알골이란 말을 처음 듣는 소년단원들은 《피알골이 뭐예요? 할아버지!》하며 이상한 말이라는듯 묻는 것이였습니다.

× ×

피알골…피알골이라면 이 마을 소년들은 수수께끼 같이 생

각할 말이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가슴에 사무쳐 있는 말입니다.

옛날 준혁리는 질편한 땅이였고 여기서 가꿀 수 있는 곡식이란 피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그 땅마저 독차지하고 있는 지주 최 봉재는 제배 부른것만 생각하고 돈 많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을을 스쳐 흐르는 청천강 물을 끌어 들여 논을 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는 바뀌여도 농민들에게는 피죽도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겨운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 피알골을 몰아낼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으로 인민 위원회를 세웠고 소작하던 땅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쓴 패말들을 박았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된 기쁨 우에 또 한가지 기쁨을 맞게 되였습니다.

《피알골을 몰아 내자!》.

기쁨을 자아내는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뛰놀게 했습니다.

《여보게 갑룡이, 피알골을 해마다 벼이삭 물'결 치는 논'벌로 만들 수 있다는게 정말인가!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나!》.

해방전까지 지주 최 봉재의 막간 살이를 하던 치모의 할아버지는 인민 위원장인 김 갑룡 아저씨에게 다가 앉으며 손목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한데 뭉치면 됩니다. 이제 보십시요! 청천강 물이 봉화재 고개를 넘어 와서 피알골을 몰아내는 걸…》.

이른 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괭이와 삽, 새끼줄과 패말을 메고 들고 봉화재 고개로 오르는 김 갑룡, 강주견, 심 정호, 박 기도 등 리 인민 위원회 아저씨들과 치모의 할아버지를 보았고 새끼줄을 늘이며 패말을 박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 마을 사람들은 봉화재 고개를 하얗게 덮었고 번뜩이는 곡괭이, 삽질 소리와 어울리여 《어기영 치기영》 목도 소리도 울렸습니다.

김 갑룡 아저씨가 군 인민 위원회에 갔다 온 후부터는 남포 소리가 요란했고 일도 푹푹 자리가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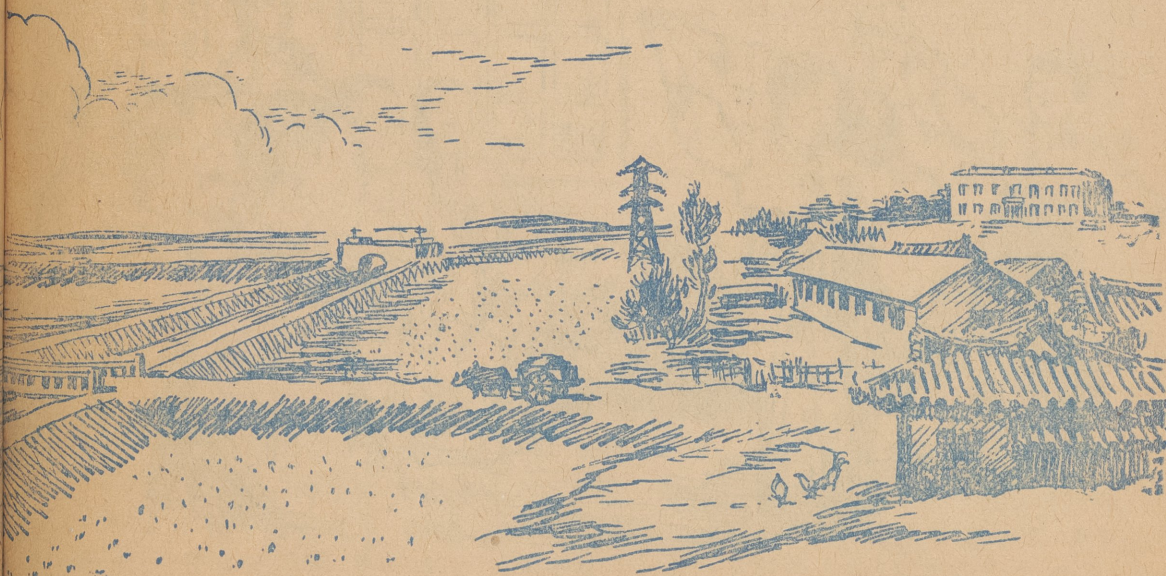
완공을 앞둔 어느 날입니다. 밤이 되여 억수로 퍼붓는 소나기로 채 끝을 못맺은 동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벌써 리 인민 위원회 아저씨들과 열성 농민들이 달려 들어 끝장 못낸 동을 쌓고 있었습니다.……

드디여 공사는 끝나고 잔잔히 서해로만 흐르던 청천강 물은 처음으로 이 마을에 콸콸 흘러 들었습니다. 치모의 할아버지는 분배 받은 12,000평의 피밭(피알)이 논으로 된 것을 바라보며 춤까지 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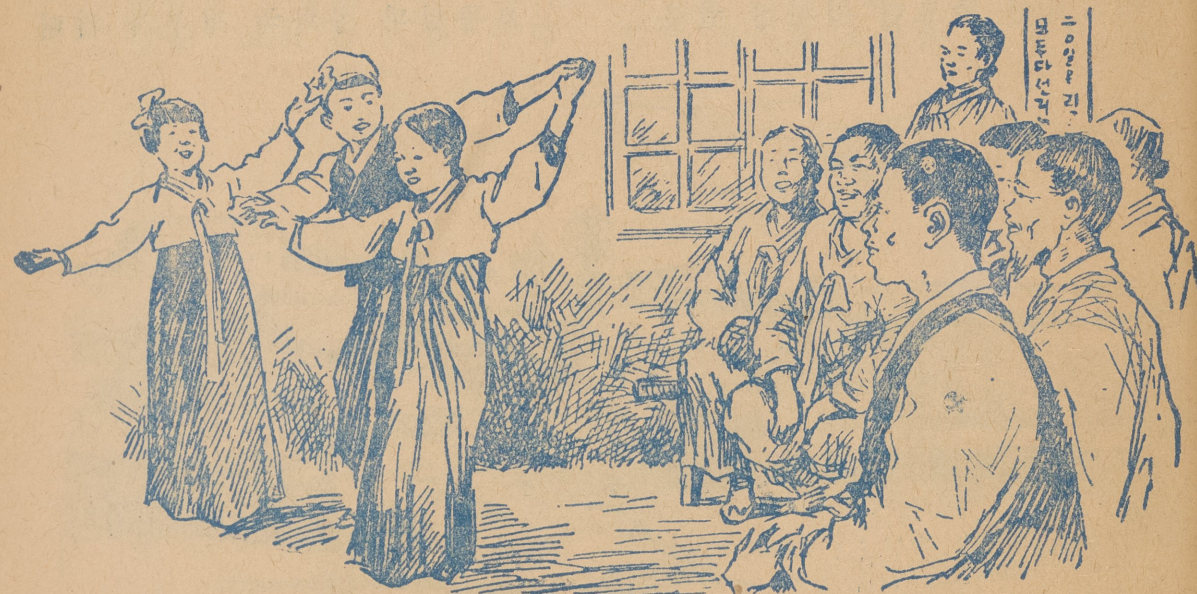
어느덧 이 마을은 황금 물'결 치는 논'벌에 둘러 싸이게 되였고 양수장에 전기를 끌어 오자 온 마을 집집에도 불꽃이 피였습니다. 풍년 맞는 첫해에 벌써 20채의 기와집이 늘었고 재봉기를 산다 시계를 산다 야단들이였습니다.

또 마을 한 복판에는 아담하게 준혁 인민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낮에는 어린이들의 글 소리 랑랑했고 저녁에는 밝은 전등'불 밑에 어른들의 글 소리 드높았습니다.

산이며 강이며 경치 아름다운 이 마을은 또 살기도 좋게 되였습니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가리

키는 길을 따라 이 마을에도 농업 협동 조합들이 조직되였습니다.

협동 조합들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국 해방 전쟁 때 이름난 보잡이 명수이던 김 락희 누나가 관리 위원장으로 일하는 봉화 농업 협동 조합은 더욱 훌륭합니다. 작년에 하루 한 사람이 일한 것(1로력일)에 대하여 4K 600g의 분배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7K 400g이 차례진답니다.

이리하여 원쑤놈들이 폭격하고 불살랐던 이 마을에 전쟁 전보다 더 훌륭한 기와집들이 가득가득 들어 찼고 집안 살림사리도 늘어갑니다. 한두채 남아 있는 초가집이 자취를 감출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나라, 우리 마을의 주인이지. 우리들이 내세운 일'군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말이야!》.

이렇듯 이 마을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인민 정권이 베풀어 준 행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선거에 더 잘 참가할 것을 다짐합니다.

× ×

소년단원들의 연예 공연은 끝났습니다. 치모의 할아버지는 무대에서 내려 오는 소년들을 붙안아 주며 《참 창가 잘 했다! 춤은 나비보다 낫구나!》하며 칭찬합니다. 자기 아들 딸들을 귀엽게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유난히 밝았습니다.

(평남 개천군 준혁리에서)

옥 선

송 창 일

1

학교에서 돌아온 태호는 책가방을 내던지듯 마루 우에 놓으며 《어머니 내 책가방…》하고 책가방을 어머니께 부탁한다는 말끄리도 채 맺지 못한채 어디론가 부산히 달아 뛰는 것이였습니다.

《얘야! 또 무슨 장난을 하려구?》.

겨울 옷을 짓고 계시던 어머니가 후닥뛰여 나오면서 달아 뛰는 태호를 멈춰 세우려고 했지만 벌써 태호의 재빠른 걸음은 대문밖 담모퉁이를 돌아 달아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쯧쯧! 애두 참 덜레발이라니까》. 어머니는 조금 불쾌한 낯을 하시면서 또 바늘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남처럼 소곳이 책상에 앉아 숙제를 끝맺고 놀라고 매일 같이 타일러도 잘 듣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태호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살 같이 담 모퉁이를 돌아 신작로로 달아 뛰던 태호는

《너 어딜 가니?》하고 찾는 소리에 떡 멎고 보니 명구였습니다. 손에 실험 도구를 움켜 쥐고 조심히 걸어 오는 명구에게 《야! 넌 때 장난바치구나!》하고 태호는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이게 왜 장난이야 공부지》. 명구도 싱긋 마주 웃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오겠니?》.

《그래!》.

《뭐가 또 바쁘니?》

《성식이네 토끼가 새낄 낳았다. 일곱마리나—》.

《그래 어쨌단 말이냐 그게—》.

《가 봐야겠어, 한마리 줄지두 모르거든 친한 사이니까》.

이 말에 명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까지 내여 크게 웃었습니다.

《토끼 새낀 이담 보구 같이 실험해 보자꾸나. 이게 더 재미 있어》.

명구는 웃음을 거두며 조용히 타 이르듯 말했습니다.

《체! 그런건 하나마나지!》.

태호는 명구의 말을 대스럽게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명구는 눈이 둥글해지며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내지 말어, 그렇지 않니? 산수나 국어면 몰라두 《자연》 같은거야 쉬운 거야 거저 먹기란 말이야》.

명구의 마음은 언짢았습니다.

(태호는 확실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평소에도 그랬지만 명구는 태호를 도와 바른 학습 태도로 이끌어 줄 마음이 부쩍 가슴에 치받쳐 오름을 느꼈습니다.

«명구야! 그러지 말구 나한테 물어, 자연 같은건 제꺽 대답할게—». 태호의 말에 명구는 그저 싱겁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안다면 하나 물어 볼가?».

«그래 물어».

«수증기란 뭐냐? 대답해 봐!».

«그런 쉬운걸 묻니? 물을 끓여 나오는 김이지 뭐야».

«그럼 또 수증기를 어떻게 리용하는가? 어디 대답해 봐!».

«그만 둬라 얘, 그런 쉬운건—».

«글쎄 대답해 보라니까».

«그건 뻔한게지 기차나 기선에 리용하지 뭐야».

태호가 척척 대답하는데는 명구도 더 묻기가 어색했습니다.

«무던히 아는데?!».

사실 명구는 내심 태호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싱겁게 헤여질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와 같이 실험을 하려구 며칠째 두고 구해 만든 실험 도구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명구는 태호처럼 산수나 국어에만 힘을 쓰는게 아니고 모든 학과에 꼭 같은 힘을 쓰는 아이였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정성을 들여 가며 수증기의 실험 도구들을 애써 만들었던 것입니다.

«태호야! 그만 너의 집으로 가자, 재미난 실험이야, 한번 실험해 봐야 선생님 앞에서 척척 하지 않겠니?».

명구는 안타까이도 태호의 등을 밀다싶이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태호는

«그러지 말어 네 맘도 다 안다. 그렇지만 성식이와 약속이 있어 꼭 가봐야겠어»

더 이야기할 것 없다는듯이 태호는 그냥 달아 뛌습니다.

명구는 서운한 감을 느끼면서 멀리로 사라지는 태호의 뒤'모습만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

명구가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연» 시간이 왔습니다. 학과 학습 끝에 수증기의

힘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였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대로 대여섯명씩 한패가 되여 실험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구네 패에 태호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줄에 앉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람프»에 불을 달아 놓았습니다.

«후라스코»에는 물이 끓어 뽀얀 수증기가 차가고 있었습니다. 수증기는 점점 팽창해 나갔습니다.

«빵—» 하고 «후라스코» 마개가 편이어 튀였습니다.

«재미 있지요. 수증기란 이렇게 힘이 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리용하여 기관차, 기선 같은 육중한 물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험에 성공한 아이들은 기쁨에 어린 얼굴로 제 자리로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가요, «간단한거야» 하고 대스럽게 여기지 않던 실험이 태호를 괴롭힐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태호의 «후라스코»의 마개는 도무지 튈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어느듯 딴 패가 교대되였습니다. 그래도 태호는 자리를 내지 않고 «후라스코»만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얘! 그만 들어 가려므나. 암만 해도 안되는걸 들여다 봐 뭐하니?».

한 아이가 자기의 순번이라고 재촉합니다.

«조금만 가만 있어 다 돼 가—».

태호는 자리를 내고 싱겁게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순간 유리창을 통해 반사되는 선생님의 안경이 태호의 숙인 얼굴에 번쩍 비쳐 왔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신은 꼭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태호의 귀에는

«아니 넌 어떻게 그런 간단한 실험도 못하니?» 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태호야! 내 도와 주마! 어떻게 된게냐?» 보다 못해서 명구가 뛰여 나왔던 것입니다.

«괜찮어! 곧 될거야».

그래도 남의 힘은 빌리려 하지 않는 태호는 입속 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하! 알았다. 이러구야 수고만 했지》

명구는 얼른 교탁 우로 가서 매끈하고 단단한 마개 하나를 골라서 태호의 《후라스코》 마개와 바꾸어 막았습니다.

이윽고 《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태호의 《후라스코》에서도 마개가 튀여 나갔습니다.

책을 들여다 보시던 선생님이 고개를 드시며

《옳지, 인제 성공했군!》하고 빙긋 웃으셨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 갔습니다.

3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태호와 명구는 유쾌하게 웃고 떠들며 걸었습니다.

《너 때문에 살었어, 그놈의 마개가 금이 른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나!》.

《아니 김이 새여 나가는 것도 몰랐니?》.

《쉽게 생각했거든, 틀어 막으면 빵—할 줄 알았지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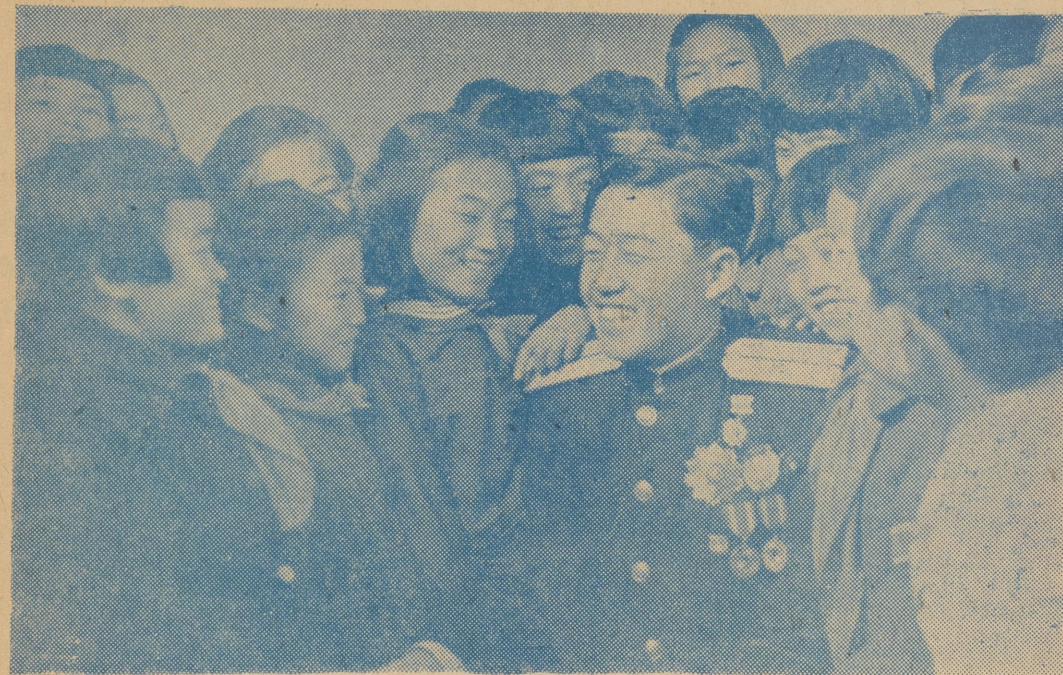
《터진 것도 터진거지만 똑 바루 막지도 않았댔어. 김이 스름스름 나오구야 빵 소리가 날게 뭐야》.

둘이는 이런 말을 하며 몇번이나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성식이네 토끼 새낀 어떻게 됐니? 한마리 주던?》.

《응 인제 젖이 떨어지면 한마리 준다고 그랬어. 너 나하고 같이 토끼장 만들어서 길러 보지 않겠니?》.

《그래 참 재미 있을거야, 내 크로바도 많이 뜯어다 먹일게》.

어느 사이엔가 가림'길까지 온 그들은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여졌습니다.

민청의 뒤를 따라

《나는 지금도 1946년 겨울 쏘련 기관사와 함께 승무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도중역에서 우리가 밤을 새우게 되였을 때 기관차의 펌프가 얼지 않도록 쏘련 기관사는 자기가 입었던 외투와 모포를 기관차 펌프에 덮어 주었지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예요. 기관사가 된 나는 이 모범을 본받아 기관차를 자기 몸처럼 애끼며 사랑하게 되였고 자검 자수 운동에(기관사가 직접 기관차를 돌보며 수리하는것) 특히 주의를 돌려 기술을 배우려고 애썼지요》하고 로력 영웅인 최 명찬 기관사 형님은 삥둘러선 소년단원들을 사랑스럽게 둘러 보셨습니다.

《영웅 형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시던 이야기도 해주세요》 영호 동무가 말했지요.

《그러지 않아도 말하려던 참인데…》 영웅 형님은 웃음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책에서 이런것을 알게 되였어요. 선진 국가인 쏘련 기관사들은 운전 기술보다 수리 기술을 먼저 배운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기관사들은 기관차를 운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기관차의 사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기관차를 머물게 했지요》 이때부터 형님은 수리 기술을 배우는데 힘을 다했었습니다.

기관구에서 떠나기 전과 돌아와서는 반드시 기관차의 각 부분을 자세히 보살펴 보며 기계들을 하나 하나 익혀갔습니다.

쉬는 날을 형님은 승무조원들과 함께 기관구 공장반에서 보냈습니다.

기관차 수리하는 공장 로동자들의 일을 도우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지요.

형님은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기술을 배우려 공장반에 갔을 때 어떤 로동자들은 달갑지 않게 여기며 제일이나 제대로 하라고까지 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형님은 락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운전 도중에 있을 기관차의 고장을 미리 알아내며 승무원들과 함께 수리해보며 실험도 했습니다.

《지난해 늦은 가을 어느날이였지요. 기관차가 목적지인 정주역을 향하여 고읍역을 떠나려 할때 웬일인지 오른쪽 주수기(물을 넣는 기계)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멀지 않은 거리를 앞뒀으므로 왼쪽 주수기만 쓰면서 운전을 계속했답니다. 거의 정주역에 이르렀는데 글쎄 왼쪽 주수기마저 듣지 않겠지요. 보일라의 물은 거의 없어져 갔지요. 이제는 이 이상 기관차를 더 몰고 갈 수 없게 되였어요. 이때까지 맡은 계획보다 10톤의 화물을 더 나르면서 더 많은 거리를 사고 없이 운전한 나는 정말 안타까웠지요. 이런 사고로 하여 중요한 건설 기자재를 늦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는 곧 주수기를 뜯어 수리할 것을 결심했어요 주수기를 뜯어 보았더니 기관차의 보일라에 물을 넣어 주는 주수기의 라사가 풀어져서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라사들을 제자리에 잘 맞추고 꽉 죄여 주수기의 고장을 고쳤습니다.

마침내 주수기는 쨍 하고 소리를 내며 물은 보일라로 들어 갔지요 만일 자검자수 운동으로 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때 기관차의 고장을 수리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하고 영웅 형님은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봐 기술이 제일이지, 영웅 형님두 꾸준히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사고를 제때에 막지 않았어》. 흥미 있게 듣고 있던 소년단원들 가운데서 기술 끄르쇼크원인 정남 동무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1318톤 (화차에 실으면 44차량)의 석탄을 절약하면서 3개년 계획을 지난해 7월에 넘쳐한 영웅 형님에게는 빛나는 자랑도 많았습니다. 이리하여 로력 영웅 칭호를 받은 형님은 지금도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기관차 민청호 미가서 268호와 함께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영웅 오빠! 우리들에게 대회 소식도 들려 주세요》. 제일 작은 정희 동무가 생글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건설해 나가는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 젊은 민청원들은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중요한 모임이지요》. 영웅 형님은 소년단원들이 즐기며 흥미있어 할 사업들을 많이 조직해 줄 데 대한 의논도 있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4차 대회 대표로 오신 영웅 형님은 대회에서 다진 결의를 소년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를 길러 준 당의 부름따라 젊은 민청원으로써 하루 속히 우리 조국을 통일시킬 그날을 위해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보다 많은 일을 하겠어요》 영웅 형님의 이 결의는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도 로력 영웅인 최 명찬 형님처럼 꾸준히 기술을 배워 앞날의 일'군으로 준비하며 훌륭한 민청원으로 자라겠다》라고——

평양 제9 인민 학교 대에서

실습지의 가을

연두봉을 뒤따라 서로 키돋이나 하듯 우뚝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은 곱게 단풍이 물들어 갑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안겨 오는 이곳 소년단원들의 실습지에도 무르익은 열매들이 탐스럽습니다.

팔뚝처럼 큰 이삭이 둘씩 달린 옥수수! 한덩굴에 아흔 두개나 달린 호박! 이처럼 훌륭한 열매를 크고 작은 돌맹이가 깔린 매마른 땅에서 따내는 소년단원들의 웃음 소리는 높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얻어진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도 컸지만 더우기 이들은 정평군 다오 인민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을 손님으로 맞이한 더 없는 기쁨에 잠겨서 일하고 있었지요.

대 위원장 동무는 귀중한 손님들을 자랑 많은 자기들의 실습지로 안내했습니다.

× ×

처음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간 곳은 돌각담과 다름 없는 밭둔덕이였습니다.

손님들은 실습지는 왜 안보여주고 밭둔덕으로 데리고 가는가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랠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꾼 실습지의 호박 밭입니다. 한 덩굴에서 아흔 두개까지 땄습니다》.

대 위원장은 산처럼 쌓아 놓은 호박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밭둔덕에 올라서 보니 밭둔덕은 둥글둥글한 큰 열매들이 달린 호박 덩굴로 한벌 덮여 있었지요. 소년단원들은 밭둔덕 저쪽에서부터 호박을 따 오고 있었습니다.

산처럼 쌓여지는 호박은 마을 협동 조합에 가축 사료로 보낸다는 것이였습니다.

다오 인민 학교에서 온 손님들은 보통 재배법으로 가꾼 것보다 3배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호박을 신기하게 바라 보았습니다.

대 위원장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호박 가꾼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이른 봄이였습니다. 호박 밭은 어디로 정하며 무슨 종자를 심을가에 대하여 의논했었습니다. 밭둔덕을 잘 가꾸어 영양분 많은 가축 사료를 많이 거두자는데는 의논이 맞았으나 무슨 종자를 심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을까지 싱싱 자라면서 큰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조선 호박이 좋다고도 하였고 어떤 동무들은 조선 호박은 손 주는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땅으로 뻗는 호박만을 심자고 했습니다. 서로 의논한 끝에 조선 호박을 많이 심고 여느 호박도 조금 심어서 어느 호박이 좋은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싹이 트기 시작한 호박은 어느 새에 잎이 세개씩 벌어졌습니다. 제2 분단에서는 자연'과 시간에 호박을 관찰하며 접하는 법을 배우게 되였습니다. 여러 줄기를 접해서 한 덩굴로 만들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덩굴이 뒤엉키여 바람이 잘 통하지 못하면 열매가 썩기 쉽다는 조선 호박을 접해 보기로 했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줄기 세 줄기씩 접한 호박의 덩굴은 싱싱 자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굵어져 갔지요.

퇴비를 많이 주고 또 인분을 덧거름으로 준 뒤부터 접한 호박은 다른 것들보다 먼저 꽃이 피였답니다.

흐린 날에 인공 수분을 하는 일도 재미 있었습니다. 저마다 붓 혹은 닭의 꽁지 깃을 마련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덩굴씩 맡아서 해 보았지요. 이리하여 어린 3학년 동무들까지도 왜 인공 수분을 하며 또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정말 숱이 많은 호박은 썩어 떨어지는 열매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접한 호박은 손을 주지 않아도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답니다.

자기들이 애써 가꾼 식물들이 자라나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년단원들이 흥겹게 호박을 따고 있던 밭둔덕을 내려 서면서 대 위원장 동무는 굵직굵직한 흰 알이 달린 마치종 옥수수를 따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개 이상의 이삭이 달린 이 옥수수 가운데는 이식해서 가꾼 것도 있지요》.

이식한 옥수수는 잎이 약간 누렇게 되면서 잘 자라지 않았으나 뿌리의 세근이 땅 속에 뻗어 수분을 제대로 빨아 올리게 된 다음부터 이식하지 않은 옥수수보다 인분을 많이 주었더니 빨리 커갔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곡식은 무엇보다 비료를 넉넉히 주어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실습지의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자 처음 실습지 가꾸기를 좋아하지 않던 김 승록 동무까지도 열성껏 호박이며 옥수수를 가꾸었답니다.

그리고 분단 동무들이 춘화 동무의 제의로 한 포기에 다섯 마리씩 개구리를 비료로 준 옥수수는 대가 더욱 굵어지고 이삭도 류달리 크게 달렸습니다.

개구리는 학교 옆 못 안에다가 봄에 알을 떠다 넣어 기른 것입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자라며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도 관찰해 나가면서 못두리에 울타리도 해 주었지요. 이리하여 이들은 협동 조합에 5만마리의 개구리를 가축 사료로 보냈고 수 많은 개구리를 비료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님들은 배추 밭을 구경하게 되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배추는 별다른게 없지요》하고 웃으면서 대 위원장은 이 밭에 심었던 감자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야로비자찌야를 하여 十자형 점파로 심은 감자는 한 포기에서 20알을 캐였습니다. 그런데 옛날 식으로 심어 가꾼 감자는 그 절반도 못캐였답니다. 감자 재배에서 감자도 옥수수에 못지 않은 다수확 작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자연'과 교과서에 나오는 옥수수, 감자, 오이(거기에는 호박에 대하여도 씌여 있다)에 대하여 교과서에서 보

다 몇배나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큰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이들의 실습지에 오셨던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실습지의 곡식들이 참 훌륭히 됐군! 이렇게 배워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지금보다 몇배나 더 많은 곡식을 거둘 것이요》.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장차 자기 고향 마을을 발농사로 그리고 목축업과 작잠으로 빛낼 것을 꿈꾸고 있는 동무들이 많으니까요!

다오 인민 학교에서 온 소년단원 동무들은 이들의 실습지에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동무들의 훌륭한 경험을 본받아 실습지를 더 잘 가꾸며 잘 배워 나가겠습니다》.

대 위원장 동무는 손님들을 양, 염소, 토끼, 노루, 너구리 등을 기르고 있는 자랑 많은 동물원에로 안내했습니다.

(함남 수동군 성남 인민 학교 대에서)

정 렬

한알의 곡식이라도

얼마 전에 13분단에서는 리 남일 동무의 제의로 이삭 줏기가 시작되였습니다.

한알의 곡식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고 명심한 이들은 공부의 여가를 타서 추수가 끝난 논과 밭에 떨어진 낟알을 부지런히 주었지요.

가을 방학 동안에만 해도 이들은 서로 힘을 모아 벼 48Kg, 수수 32Kg, 콩 12Kg의 낟알을 주어 다른 분단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 봉인 동무와 최 명순 동무들은 혼자서 4Kg의 이삭을 주어 동무들의 칭찬을 받았지요.

이 분단의 뒤를 따라 《논밭에 떨어진 낟알은 어떻게 되고 마는가?》라는 모임을 가진 다른 분단들에서도 지금 이삭 줏기가 한창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만 해도 우리들은 정주 농업 협동 조합의 벼 추수를 돕고 돌아오는 길에 70여Kg의 낟알을 주었습니다.

계속 우리들은 농민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낟알을 한알이라도 헛되게 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삭 줏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북 정주군 제9중학교 (인민반)

대 위원장 정 유자

김 정호 선생은 《대동여 지도》라는 조선 전국 지도를 처음으로 가장 정확하게 훌륭히 만든 유명한 지리 학자입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학문을 닦는데 뜻을 두게 되자 특히 지리학에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의 산과 들, 강'줄기—그 하나 하나를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여 어디서 끝났는가? 산'발이 끝나는 곳에는 어떤 들과 마을과 강들이 있는지?》, 《그 강 줄기는 어디로 흘러 드는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김 정호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끼니와 잠을 잊고 지리학을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지리책과 지도들을 널리 연구하여 《청구 선표도》라는 지도 2책을 183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김 정호 선생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후 30년이란 긴 세월을 조국의 지도를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만드는데 바쳤습니다. 살을 에이는 눈 바람과 내려 쪼이는 해'별도 가리지 않고 조선 각도를 십여차에 걸쳐 답사하였습니다. 백두산에도 몇번이나 올라가서 부채처럼 벋어 나간 산'줄기의 높고 낮음을 재였고 천지로부터 시작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의 끝까지 걸어 다니면서 그 흐름과 길이를 재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리들은 이처럼 오직 조국의 훌륭한 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강산을 답사하는 선생을 수상한 사람이라고 잡아 가두며 고문하는 등 그의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앞을 가로 막는 난관들도 그의 뜻을 굽히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남북을 가리켜 주는 지남침 한개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세계 지도가 벗이 되여 주었습니다.

끝내 김 정호 선생은 갖은 곤난을 이겨가면서 대동여 지도 22첩을 1861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 지도에는 산맥과 하천, 도, 군, 읍,

동, 리, 성, 병영, 병참(군대 소부대가 있는 곳), 역, 봉화대, 창고, 릉침 (임금의 묘)과 옛날의 산성, 읍, 병영과 도로 등 11,600여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 제작한 지도에 못지 않은 정확한 지도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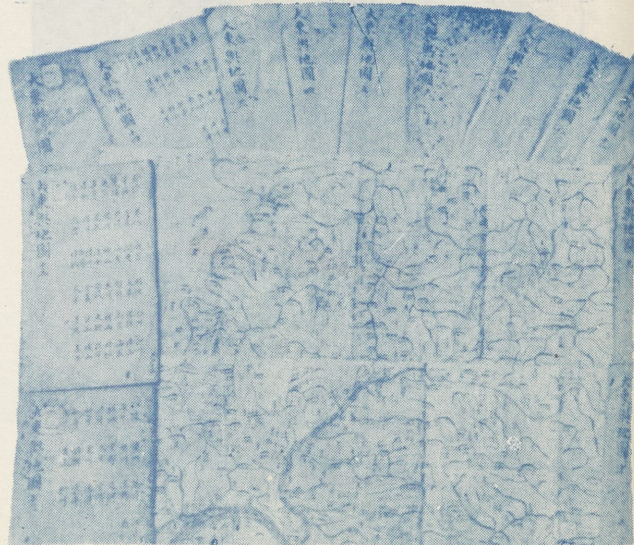
그리하여 김 정호 선생은 옛날의 수 많은 우리 나라 지리 학자들 가운데서도 뛰여난 지리 학자로 이름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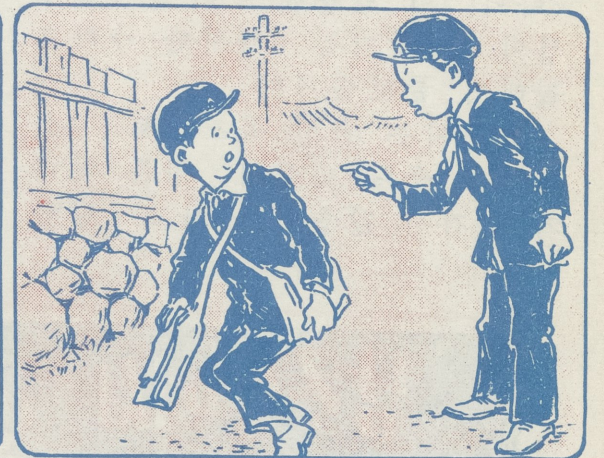
김 정호 선생은 자기의 힘으로 1861년과 1864년의 두차례에 완성한 대동여 지도를 목판에 새겨 찍어 냈습니다. 이 일을 선생의 따님이 도와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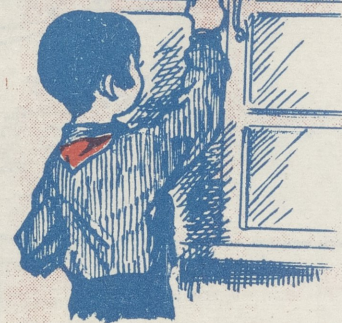
그때의 임금인 대원군은 김 정호 선생의 이와 같은 공로를 높이 표창할 대신에 나라의 비밀을 퍼뜨렸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대동여 지도 목판을 몰수하여 불살라 버렸으며 선생을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애국자이며 지리 학자인 김 정호 선생이 일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지도가 훌륭한 것이라는 것은 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지만 누가 만든 것인지는 거의 백년이 지나도록 알려지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고산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20여년 전에 비로소 김 정호 선생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과 고산자가 그의 딴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자기 혼자의 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조국을 위해저 첩첩 쌓이는 난관을 뚫고 만든 김 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는 지금 우리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학자들이 우리 조국의 력사와 지리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데 보배로운 자료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애국자의 로력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것입니다.

만화 앞에서와 뒤에서

《무겁지 않니?
네 책보 내 들어다 주마》.

《내 책보 집에까지 들어다 다우!
제기 차기 내기하다가 갈게》.

창문

지난 10월 2일이였습니다.

온 종일 흐리던 날씨는 저녁이 되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쏴—》하고 퍼붓는 비는 희옥이네 집 창문을 두다립니다. 그때마다 책상에 마주 앉은 희옥이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왔습니다.

그것은 희옥이와 반 동무들이 청소를 다하고 창문 하나만은 닫기지 않는다고 그대로 두고 왔기 때문이였습니다.

희옥이는 지금 닫기지 않은 창문이 세찬 바람에 벽에 부딪치고 문턱에 부딪치면서 유리가 깨지는 것만 같았고 그 창문으로 비'물이 뿌려 들어 책상은 물론 방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 같이 생각되였습니다.

청소가 끝났을 때 닫기지 않는 창문을 선생님에게라도 말하여 왜 닫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록 후회되였습니다.

희옥이는 학교로 뛰여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권 선생님이 수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권 선생님은 희옥이를 보고 《아니, 이 밤중에 웬 일이냐? 집이 가깝기는 하지만…》하고 놀래며 물었습니다.

희옥이는 숨찬 목소리로 《선생님! 우리 교실의 창문 하나가 닫기지 않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권 선생님은 알았다는 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비 오기 전에 교실을 한바퀴 돌아 보다가 닫았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물건을 제 것처럼 애호하는 희옥이는 지난 일요일에 혼자서 칠판을 수리했습니다.

그리하여 희옥이는 소년단 대렬 앞에서의 표장을 받았습니다.

자강도 강계시 제3 인민 학교대
소년단 지도원 **김 웅 섭**

—우리도 언제나 수업료 없이 공부할 때가 있을가!

—그땐 《뜀박질 기압》도 안받게 될거야…

이 그림에서 우리들은 뜀박질하는 소년들을 본다. 이 소년들은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여 벌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벌을 "뜀박질 기압"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학교는 미군이 차지하고 학생들은 쫓겨나 천막 교실에서 공부한다. 학교에서 내라는 돈을 못내면 비바람조차 못막는 천막 교실에서조차 쫓겨 난다.

때문에 남조선 소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처럼 행복하게 공부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함흥시에 건설되는 문화 주택

보천 림산 사업소 로동자들의 주택

사리원시에 건설되는 근로자들의 주택

희천 정밀 기계 공장 로동자들의 주택

새 집으로 이사가는 기쁨…… 리 봉금 촬영

평양시에 건설되는 표준주택

앞표지 **모형 지도를 만들며……** 리 건 영 그림

편집 위원 김 주 현(주필) 김 창 호 원 홍 구 리 순 길
강 효 순 리 배 형 림 홍 은

1956년 11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11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11호 총(86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271 값 25 원 52,000부 발행

념원 리 정 규 촬영